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4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2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33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의 군 조직,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1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의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모두 6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병대 제6여단을 핵·WMD 대응 체계 및 전략자산의 작전지휘 상황 점검을 위해서 전략사령부를, K-방산의 위상과 미래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기관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후보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진영승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총책임자로서 군 작전을 지휘 감독하고 국가의 통합방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중동전쟁과 동북아 및 글로벌 정세의 긴장 고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청문회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장을 책임질 합동참모의장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진영승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까.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가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공직후보자 진영승

○**위원장 성일종** 이어서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수호에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과 이 시간에도 작전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되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시대적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합참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목소리라 여기며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심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대남 단절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핵·미사일,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간부들의 이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기 위해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군심을 결집하겠습니다.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내며 부하는 이를 믿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군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여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복합 안보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을 통해 안정적 역내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작전수행체계를 구비하고 첨단 군사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군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방개혁과 발맞추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합동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통합작전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의 주도적이고 진취적 노력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의 변하지 않는 사명은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군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합참의장후보자로서의 영광보다도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보다 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이자 조언으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황명선입니다.

합참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되돌려 놔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날 위헌·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합참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던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께서 비상계엄 시의 합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황명선 위원** 합참의 역할이요, 그 당시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사실 첫 질문부터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계엄사령관을 보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의장을 패스해서 위헌·위법한 계엄이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아주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엄 해제 그 시간 이후에 윤석열과 그리고 김용현 등등등등 합참의 지하병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참의 차장이 부사령관으로서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합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참의 철저한 뼈저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황명선 위원** 후보자께서 언론의 발언 가운데 12·3 내란과 관련된 언론의 질의가 있었어요. 군은 지휘체계 속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수명하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2·3 내란은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그래서 현재에서 윤석열의 파면까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이런 발언들이 내란의 명령에, 불법적인 명령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명령과 복종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은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종에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우리 군은 언제든지 전장에서도 명령을 내리면 임무를 수행하여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무에 있어서 이게 정당한지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명령을 수행할 때는 군의 수행력이라든지 임무수행에 대한 연결고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계엄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은 명령체계, 저도 해병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군에 신뢰를 저버린 이유가 위헌적인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전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병들한테, 철저하게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황명선 위원 지금은 또 우리 합참이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을 지휘해야 될 굉장히 막중한 지휘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AI를 이용한 드론이나 무인 로봇 이런 형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군의 국방에 대한 안보, 확실한 스마트 강군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합참의장께서 자주국방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자주국방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춰 온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한미동맹의 관계는 굉장히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면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체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병사들에 대한 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체계와 관련돼서 이제는 AI를 도입하고 그리고 무인 로봇 그리고 무인드론 이런 형태로 지금 스마트 강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나라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도 스마트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AI, 드론, 러-우 전쟁에서 나온 전훈 분석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력증강 방안에도 적용해 가지고 현재도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무튼 자주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최첨단 AI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합참의장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작권 전환 관련한 내용이 있지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8월 13일에 국정운영 5개년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후에 9월 16일 날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여기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는 것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게 바꿨습니다. 사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든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든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가정이 필요한데 거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 혹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 그다음에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PP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군사적 능력,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건 3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인데요. 제가 조건 1은 빼겠습니다. 지금 IOC 끝내고 FOC 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건 1은 빼고요 조건 2·3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조건 2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동맹의 효과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합참에서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것. 비문 아니고요.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축체계인데 크게 킬체인, KAMD, KMPR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갖추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육해공군을 나누고 있는데, 킬체인 같은 경우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계획이 30년대 초반이고요, 한국형 구축함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KF-21 전자전기 마찬가지. KAMD는 30년대 초반이고요. 저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KMPR, 특수침투정 등 다 30년대 이후입니다. 현재 이게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전력 전문가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근무를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에서의 저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데 거의 100% 완성이 저 시간 내에 맞춰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기의 많은 무기체계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산다는 것,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는 목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저렇게 무기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조건이라는 게 달성되지 않은 가운데, 즉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축체계를 갖춰 가기 위해서 25년에 7조 3000억, 26년에는 8조 9000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고……

2015년에 한미가 합의할 때는 그전에 두 번에 걸쳐서 2012년, 2014년 이렇게 연도로 했던 것을 조건으로 바꿨을 때는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조건 1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될 한반도의 군사적 능력이지만 조건 2는 북한의 핵이 과연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렇지요?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한다면 우리가 만든 저 조건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우리가 생각한 조건이 자칫 우리의 발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역내 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중·러 3국 정상, 저기에 보시는 게 이번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북한은 러-우 전쟁에 1만 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작년에 방북해서 뭐라 그랬냐면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했습니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1번의 능력, 지휘체계구조든 지금 하고 있지만, 조건 2 북한의 핵 위협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위협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능력에 기반할 수 없고 위협에 기반하는데 그대로 가느냐? 세 번째, 과연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들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빨리한다, 자주국방을 한다, 매우 중요하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권을 가진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지난번 국방부장관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0년도 전반기 임기 내에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만든 되지도 않은 조건을 성급하게 달성했다라고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서 생각할 때 한국이 서둘러서 전작권 전환을 가려고 한다고 오해한다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30년 후반기에 취약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의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되시면? 조건 1 우리의 군사적 능력, 조건 2 북한의 핵 위협, 조건 3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우리 국군통수권자 그리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치도 거짓 없이 정확한 군사적 능력을,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참을 지휘하고 전군을 지휘하시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1분만……

○위원장 성일중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강선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공히 다 끝내 주시고 또 언론에도 혹시 보도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7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어요.

합참의 명령을 각 예하 사단 사단장은 제대로 따라야 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합참이 임성근에 대해서 단편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아직 안 하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박선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모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박선원 위원 합참이 임성근에게 단편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아니라 육군에 병력 통제를 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이 병력을 통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채 상병 특검에서 합참의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항명죄로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작사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박선원 위원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김여정이 우리나라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항의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남에서, 우리 쪽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항적 점 하나를 포착했다, 공작사 레이더에서.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무인기가 몇 번 휴전선을 넘어간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11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원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왜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 이 상황……

○박선원 위원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작사, 공군 쪽에 죽 일해 왔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했고 전략사령관 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무인기 몇 번 넘어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열 번 넘어갔어요. 열 번 넘어갔으면, 한 번에 한 번씩 점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공작사 레이더에서 점 열 번 이상 발견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작사에서 합참의장에게 보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NLL의 해군 함정이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이라고 해서 보고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이 사항은……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특검에서 진행 중이고……

○박선원 위원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결과가 나오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합참에 지침을 줘야 될 부분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합참의장 임명 예정 해 가지고 국회로 넘어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아드님 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들은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드작사에서 작년에 근무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저작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드작사라 그랬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드론작전사령부 모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말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입니다.

○박선원 위원 서울에 전략사령부 있고 포천에 드작사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박선원 위원 아드님 결혼하셨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몇 번 만나십니까, 한 달에? 방첩관으로 근무하는 거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드론작전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 가지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박선원 위원 왜 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하고 대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 기본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무인기가 열 차례 이상 넘어갔고 공작사에서 올라갈 때마다 항적이 점이 찍히게 되어 있고 전술, 방공레이더에도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박선원 위원 아니, 레이더에 올라가고 내려간 거 잡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레이더에 잡히는 거는 항적의 RCS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무인기 올라간 것, 이미 첫 번째 올라간 것 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게 열 번 올라갔으니까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못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잘 들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넘어간 거 잡았는데 나머지 아홉 번은 못 잡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다 잡는데, 그러면 지난번처럼 만약에 작전본부장이 육사 출신인데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전본부장이 정보본부장하고 짜고 국적부대라고 해 가지고 드론작전사령부하고 짜고 이런 짓 또 하면 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일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휘체계에 있어서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휘체계 손상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합참의 단편 명령을 어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명이요,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있다는 겁니까?

아까 이거 길지도 않아요. 3페이지짜리 읽으면서 왜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에서 ‘실용 중심의’라는 말은 뺐습니까?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의 함의가 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런 모두발언에 대해서는 참모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이 책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후보자가 이거 읽으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읽었지요? 외워서 하신 거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익과 전방위적 군사협력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용 중심의’라는 말

을 뺀 이유가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일부러 뺐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 그러면 그것 정말 문제예요. 인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합참의장 하시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란으로 망가진 군을 다시 세우고 군령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후보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협력의 함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용 중심이 빠졌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모두발언에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발언도 계속해서 제가 수정하면서 가져왔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버전도 차이 날 수 있고 또 제가 발표하면서……

○박선원 위원 그러면 일부러 뺐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뺐 적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방위적 군사협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전방위적 군사협력을 하면서 국익과 실용 중심에서 어떻게 실용 중심을 빼 버리고 읽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방위적 군사협력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진영승 후보자님, 먼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제가 국방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신뢰받는 군을 강조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의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본부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 안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실질적인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국은 합참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합참에서도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동참모본부를 위한 세 가지의 방향성을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의 정상적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 둘째 12·3 불법계엄의 완전한 청산과 세 번째는 국방개혁을 통한 군의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군의 정상적 지휘통제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인 합참의장님께서도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서열로 전군의 작전 지휘 감독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합참의장님이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10개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합동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사와 전략사령부가 합참의 지휘체계 아래서 협동·합동 작전태세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임무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합참의 지휘통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백선희 위원 수사 진행 중이어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설 과정을 보면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하셨고 20일 만에 합참 내 드론사 창설준비단이 구성됐고 4월에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이 됐고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2023년 9월 1일에 드론사가 창설되게 됩니다.

국방혁신 4.0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3월 3일에 발표했는데 3일 후인 3월 6일에 부랴부랴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드론사 창설을 반영하는 촌극까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군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8개월 만에 급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사령관으로 있는 같은 합동부대, 전략사령부 있지요? 전력사령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는 어쨌건 문재인 정부부터 논의돼서 2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드론사는 갑자기 창설됐습니다, 8개월 만에. 드론사가 무엇을 위한 창설인지, 군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창설 과정 자체에 의문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드론사와 각 군의 드론부대가 있습니다. 이 드론사와 각 군의 드론부대가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합참에 드론사를 만들려면 기존의 각 군에 있는 드론부대와는 다른 대체 불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사 창설 당시 그때 김명수 합참의장님께서 합참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합동 전장 영역에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는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사가 합동전투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백선희 위원 저는 역할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사가 전투작전부대입니까, 정보부대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투작전을 수행합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닉 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무기체계는 모르겠지만 또 소형정찰드론은, 지금 드론사에서 주 전력으로 하고 있는 소형정찰드론은 목표 지점은 사진 촬영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합동전투부대 작전사령부의 주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드론봇 부대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작전상 운용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합동부대인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에 대해 작전지휘를 하거나 운영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합동부대 창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두 개 이상의 군으로 같이 통합 지휘 권한을 통해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합동부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론사의 창설 목적에는 애초에 합동작전의 의미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육해공군의 비율이 2 대 1 대 1로 맞춰졌습시다라는 그러나 그 역할을 보면 각 군의 드론부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론사를 보면 그 규모가 육군 여단급도 안 되는 부대 규모를 갖고 있고 사령관만 소장 직급으로 되어 있고 단지 사령부에 예속, 배속된 부대만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합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님이 오십만 드론전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론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주시면, 1분만 주시면……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백선희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를 좀 하시지요.

○백선희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 백선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드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좀 주셨고 이리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드론사 같은 경우는 현대의 전쟁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나 설립 배경 또 아까 전략사령부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정리되셨으면 잠깐 국민들한테 말씀을 좀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드론작전사의 창설은 드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때 여러 가지 역내 안보환경 또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사의 임무, 역할은 아직 거기에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력이 완비되면서 그 임무가 완전성을 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의 현역 서열 1위다. 아주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60년 만에 이번에 문민장관이 출범이 됐고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합참의장의 청문회는 북한군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우리 50만 장병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후보자께서 확고한 군의 정신을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준비된 능력과 자질을 보임으로써 군심 결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에게 뭘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명백한 적입니다.

○**임종득 위원** 적입니까? 한번 올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안규백 국방부장관청문회 보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그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했거든요. 혹시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실망한 이유는 장관이 주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의 군령을 보좌해야 될 합참의장후보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이나 주적이나 명백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목표는 같다고 저는 의

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임종득 위원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통일부장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이걸 좀 약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저의 답은 아까로 대체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확한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개념하에 정말 언제든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하나 올려 주십시오.

혹시 후보자님, 요 내용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SNS에 올린 내용인데,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자주국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자주국방,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다’ 이것 동의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부적절한데 명확한 것은 우리 자주국방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자주국방도 자기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자주국방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썼고 지금도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자기 혼자 싸우지 않았습시다.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우리하고도 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하고도 맺고 있고 태국하고도 그다음에 NATO하고도 다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맹을 맺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굴종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이 몇 명 주둔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독일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보다 많은 수가 주둔합니다.

○임종득 위원 3만 6000명이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요?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독일과 일본도 굴종적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수천수만도 감당할 수 있다.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첨단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가 언제 됩니까, 지금 계획에?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전력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하세월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30년이 넘어도 지금 안 됩니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숫자의 중요성, 인정하시지요?

다음 한번 넘겨 보실래요? 이거 보셨어요?

드푸이가 주장하고 있는 ‘전투력은 병력이 갖고 있는 질에 비례하고 병력수의 제공에 비례한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이 화면은 제가 처음 봅니다.

○임종득 위원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이 되고 능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병력 숫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이 128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50만인데 30년이 되면 40만도 깨질 것 같아요. 35만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 하나 보시지요.

마지막 그 밑에 보시면 상비군 숫자는 우리가 적지만 예비전력은 더 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 보세요.

한국군은 18개월, 육군의 경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예비군 편성이 8년이면서 동원훈련을 1년에 3일밖에 안 합니다. 그 인원이 260만이에요. 그런데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10년간 군 생활을 하고 33년간 예비전력으로 편성이 되면서 1년에 40일을 훈련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상비전력도 비교도 안 되고 예비전력도 숫자나 훈련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셔서 안 되고,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의장이 되신다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하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먼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첨단 과학기술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군사력 자체 못지않게 국가 총량의 능력의 합산결과가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체제에 대해서 강조 및 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누차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들에 우려가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의장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장 하시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국군 서열 1위의 합참의장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심한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것을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합참의장이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을 하지요. 지금 대답하면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흔쾌히 못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이 될 겁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관계는 법으로 무엇이라고 규정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국군조직법에 명확하게 합동참모의장의 임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 지휘 및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군령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국방위에서 몸담으셨고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18대부터 안규백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여기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진정으로 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모두발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든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첫 번째 적이 누구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 단절 조치와 적대적 두 국가, 핵미사일 재래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거기에 대한 우리 3축체계부터 해서 첨단전력을 국방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남북대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의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를 만들 때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데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이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과 군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끌려다니면 우리 군 전체가 끌려다니고 망가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한의 관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북한 김정은은 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또 법제화를 하면서도 포인트가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것이고 전술핵무기를 실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위험이 임박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에 처한 경우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쏘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제화한 총 11개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2040년도에는 북한이 약 400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력이 우리가 높네 낮네 이거는 다 의미 없는 얘기에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탄두 두 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이에 관련된 역할과 임무를 우리 전략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중요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400발이 됐을 때 일부분은 3축체제로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드론사령부를 만들었다, 아까 백선희 위원도 질의할 때 그랬지만 드론사령부가 만들어진 게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한 데 대한 대응조치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대남 침투, 적의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드론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북한이 대남적화가 아니라도 국지도발을 할 때 응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누구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에 위협을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한기호 위원** 응징해야지요. 해야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 우리 국토를 방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1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우리 헌법에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거기까지 제가 인지 못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우리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법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 뒀을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위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군이 실제로 정치의 중립뿐만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정신입니다.

12·3 내란은 이런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짓밟은 폭거였지요.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군사쿠데타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역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2·3 내란 사태 때—본인은 아닙니다만—실제로 합참이 패싱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합참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한 군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군의 명예 회복과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군이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군 내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장으로 취임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화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군의 신뢰를 높이는 데 공헌을 한 그런 참군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거든요. 이것은……

당시 합참에 뭐였습니까, 그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저는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것 몰랐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정청래 위원 몰랐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합참 모르게, 합참을 건너뛰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합참 최고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합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휘체계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기가 해이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작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작권 전환은 추진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작권 전환을 한다면 복잡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겨 뒀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정청래 위원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여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합참의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9·19 군사합의의 목적이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합의 간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부족함 없이 군사합의가 유지될 수 있고 전방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합참의장 청문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우리 국군의 최고 지휘관이실 텐데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게 나름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에 청문회를 하면 거꾸로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정말 우리 지도자로서 너무나 훌륭하고 따라야 되겠다 또 이런 면모를, 거꾸로 리더십을 보여 주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걸 잘 염두하면서 오늘 청문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적을 정의하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주적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 위협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를 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 위원**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적이고 그러기는 한데 최소한 합참의장은 적에 대한, 주적에 대한 개념이 관성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판단해서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 이걸 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관성적으로 했으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세 번을 침략한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적 개념을 합참의장이 판단하실 때는 그때그때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관성적 판단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꼭 전쟁…… 장수가 꼭 싸움해 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안 싸우고 이기면 더 좋은 거지요? 더 좋은 장수고 더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것 포함해서 군령을 잘 지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당연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겠지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리력 행사밖에 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에 맡겨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게……

○황희 위원 그러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은 제가 보면 별게 없어요.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거나 아니면 쿠데타 일으키거나 이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뉘른베르크 원칙 아시지요? 보면 대통령이나 위의 상관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서 군이 명령에 따랐다 해 가지고 그게 불법 사실이면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요. 국제법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불법적, 상관의 불법적 지시가 있을 때 그 뉘른베르크 원칙의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게 정당하고 어떤 게 정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요. 지난번 계엄 때 당연히 군인이니까 위의 국방부장관이라든가 합참의장이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절대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대령급 이상, 장군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못 들어 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참모들 또 전문가들에 대한 판단을 경청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 위원 제가 꼭 후보자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좋고 또 뭐든 운영 자체가 이렇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원칙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네 합참의장이라고 특별한 행동이라든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령을 지휘할 때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리더의 판단기준은 리더가 그 그룹과 집단을 운영하는 원칙과 평상시의 기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후보자의 판단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편 들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동맹국이,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관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동맹국이 전쟁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같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고 동맹이 있다고 해서.....

○**황희 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후보자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기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미국의 국민이, 미국인이 불안전하고 이런 상태에서 동맹국과 늘 함께합니까?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제가 위원님의 그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 없고, 동맹은 확고하게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해서는 안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동맹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익이 우선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다음에 동맹이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도 합참의장께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맹의 의미는 자국의, 자국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면 그 동맹의 가치는 잃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맹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원칙,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맹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주적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위의 대통령이라든가 장관 명령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후보자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의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면 후보자께서나 아니면 국방부의 입장은 늘 ‘세부 사항은 한미연합 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한 몇 개 갖고 있다고 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지금 그 질문에 저는 상당량의 핵물질과 또 현실화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 대통령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탄두, 핵무기 수량을 언급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5일인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 3년 만에 핵탄두를, 보유 수가 2.5배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일부장관은 22년도에 20개였던 것이 지난해에 50개로 늘었다, 쉰 개로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말씀과 통일부장관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NSC 멤버인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는 북한이 50여 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께서 전략사령관 시절 때, 2025년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북핵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 말이 맞습니까? 열чу,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핵탄두 혹은 핵미사일 숫자를 공개 발언하는 것이 한미연합 비밀을 위반한 건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은 북핵 고도에 대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몇 개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린 연합 비밀을 위반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히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 첫 단계인 어떤 동결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마는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 평가를 했었을까요?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까지 평가하기는 좀 제한 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핵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전현직 국방부장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북핵은 현실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전략사에서 북핵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우리도 이 시각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의 지금 행보를 보면 고립주의가 매우 강해졌지요. 후보자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3월에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가방어 전략지침에는 북핵 억제 등은 대부분 동맹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양안 문제 이 문제에서도 우선순위로 검토는 했지만 최근 일부 공개된 새 국방 전략에는 중국 등의 억제보다는 본토 방위만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지난 9월 17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동북아·인태 안보는 어떤 국가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자 협력이 필수다. 우리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후보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우리……

○강대식 위원 9월 17일 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언급한 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긴밀하게 부족함 없이 협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 안에 있는 우리 동맹 관계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거는 효과적으로나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 안보 환경에 있어서 동맹국의 요구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북핵 대응도 달라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의 현대화 또 전략적 운영 이러한 내용 안에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또 그 노력이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식 위원 오케이. 합참의장이 된다면 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정말로 여기에 기인한 그런 조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님, 합참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하고 적절한 분이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로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혹시 연설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아침에 유튜브 통해서 봤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고 뭘 느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자부심을 느꼈지요.

본 위원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세계에 알리는 모습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2·3 내란 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한 것이 주마등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면서도 3·1 독립운동 때 33인이 독립선언문 쓸 때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독립선언문 혹시 기억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원본을 다 외웠었어요, 실제.

‘오등은 자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국은 독립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조선의 주인은 국민이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이러한 것을 세계만방에 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었던 설움을 폭발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그 장면과 12·3 내란을 극복하고 그때도 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이재명 대통령과 유엔에서 당당하게 세계에 민주주의를 복원했음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눈물 났습니다.

12·3 내란 당시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비상계엄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는 지휘통제실에서 합참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경계태세 상향과 관련된 비상소집만 실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느낌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모든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그것이 불법적이고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그 말씀에 통감을 하고 그런데 군인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모든 국민은 즉각적으로, 특히 수도권 국민은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발령되자마자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해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회로 국회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124만 중에 딱 한 명만 이에 저항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

그런데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시대정신은, 이러한 내란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때 직을 못 던지고 용기 없이 거기에 부화뇌동 잠시라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께 군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사실 제가 오늘 모두발언에 국민께 사과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못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 마음은 같습니다. 더 이상……

○**김병주 위원** 다시 한번 하세요, 진심 어리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우리 군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는 다시는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관여하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고 ‘그때 제대로 직을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제가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국민께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의장이 되시면 내란 척결의 제일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내란 관련된 것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실시할 겁니다.

○**김병주 위원** 내란에서는 병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실제 전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관여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저는 여당이지만 합참의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군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렸으며 다시는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예, 제발 합참의장이 되어서 내란 척결의 선봉에 서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의장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군을 국민께 충성하는 군으로 만들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만 바라보고 또 북한의 적을 향해서 늘 대비태세 하는 합참의장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그러한 합참의장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것을 좀 물어볼게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합참의장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기무사 계엄 문건 아시지요?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들어 봤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계엄과 관련된 역할,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예요.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의 역할이 뭐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작전지휘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됐고,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여췀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휘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그러면 밑에서 그냥 김명수 의장같이 여기서 튀어 나가고 저기서 튀어 나가고 하면 ‘나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대체.

국군조직법 띄워 놔놓았어요.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뇌 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체계상에서 밑의 참모가 의장을 패싱해, 균형법으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국회에 답변서는 원리·원칙에 맞춰서 주셔야지 답변 못 하는 것은 전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 수사 중인 사항하고 뭘 관계 있어요?

작전본부장, 의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휘하에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정보본부장, 합참 그다음 국방…… 합참 정보본부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지요. 계엄에 대해서 답변 못 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지요.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명문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못 한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못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의장으로서.

자, 드론사 창설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휘체계는 3개로 돼 있지요? 연합사, 합참, 유엔사,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물론 SCM, MCM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군 지휘체계는 3개로 돼 있잖아요, 각자 교전규칙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부승찬 위원 어떤 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말 한마디에 만들어졌어, 잘못된 거지요? 의장님이나 군통수권자가 ‘이 부대 만들어’ 하면 절차 없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지도 않고 이걸 만들면 잘못된 거지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질문 끝나시면……

○부승찬 위원 아니,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질문 끝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드론사,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드론사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지금 드론사가 연합사 그다음에 합참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어떤 작전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건 하나라도 대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드론작전사는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문건을 대 보라니까요. 이게 옥상옥이라는 말이에요. 공중 통제는 어떻게 하고, 공역 통제요 어떻게 하고 전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평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걸 못 하겠어요, 드론이.

왜 세계의 선진 국가들은 드론사령부를 만들지 않을까요? 왜 제대, 작전제대에다 둘까요? 이 지휘체계와의 작전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은 갖다 댔어. 그런데 전력은 뭐예요, 중국산이야.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군에서도 아주 신망이 있으셨고 훌륭한 리더십으로 잘 이끄셨다는 이렇게 평판이 좋으신 분이 합참의장에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이 되면 앞으로 육해공 작전을 다 총괄하고 군령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23년도 12월 30일 날 북한이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4년도 10월 17일 날 북한이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변화가 오는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은도 통일을 상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2개의 적대국가가 된 거예요, 김정은의 시대와서. 엄청난 상황 변화라고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적대적 두 국가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교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인식하고 특히나 남한의 문화나 한류에 대한 북한 유입,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태세라든지 흔들림 없이 그 변화에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인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김정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통일 대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국으로 간주한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북한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적대국이 됐거든요. 선언을 했어요. 헌법을 바꿨어요. 지금 북한의 징후가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여러 가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그런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방벽이 어떤 성격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기본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뢰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너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문제는 뭐냐 하면 적국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북한은 지금 이 전선 전체를 어떤 요새화를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전방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활동이 국민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작전에 그렇게 영향…… 작전적으로 봤었을 때 기밀사항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이 155마일의 전선에 있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방벽을 쌓으면서 거리를 이격시키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선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방벽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묻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은 이미 적대국가로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닐 때는 군사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를 이미 선언하고 헌법까지 바뀌서 북한이 지금 현재 방벽까지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긴 안목에서의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남북 간의 관계를 긴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북한이 작년도 10월 17일에 헌법을 바뀌서 적대국가로 규정을 했단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국경선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9·19 군사합의가…… 적국이 대치하고 적국이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9·19 군사합의 이것이 지금 파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구하는 게,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군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합참의장후보자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육해공의 모든 군령을 책임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정치적인 것을 판단합니까? 군으로서, 군인으로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합참의장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국가 정책에도 군은 흔들림 없이 결기와 예기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방에서의 군사적 입장에서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은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군은,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임무가 군한테 있어요.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적대적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군이 전략적·전투적으로 압도적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명확하게 군은 대비태세에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모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태세가 준비되고 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이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 그러면 우리 군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내부적인 사기 저하나 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군심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심리전도 군사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 대북 확성기를 켜었습니다. 이미 다 켜었을 거예요. 이것을 군이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허는 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방송장비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또 그렇게 보완·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금액은 얼마나 들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심리전에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이미 전임 합참의장한테 대북방송 하는 것은 줄이고 또 북한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해빙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켜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지금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하는 후보자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 켜었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있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군이 북한한테 주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위원장 성일종 또 하나는……

제가 한 7분 정도 썼나요?

○박선원 위원 7분 57초.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강선영 위원 군인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목적은 평시에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가 실패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럴 때 군을 지휘하는 걸 우리가 소위 군령권이라고 말합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강선영 위원 우리나라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정부조직법에 국방부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면 북한의 국방상, 그러니까 노광철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현재 현역입니다. 대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계엄에서 안타깝게—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장관이 의장을 패스하고 직접 군을 지휘해서 군정·군령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법에 국방부장관에 군령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출신이, 그동안에 예비역 장군들이 했기 때문에 이 군령권 행사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정부가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이번 장관님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25년 9월 10일 날 세계일보에 ‘국방부에는 장관이 셋이다, 조찬 간담회도 없었다, 영이 설 리 만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설이. ‘국방부장관님한테는 3개가 없다. 지침이 없다. 결심이 없다. 그리고 회의가 없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언론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실제 조찬 간담회가 없어졌습니다. 조찬 간담회는 장관이 24시간 365일 한 치의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중요 지침을 하달하는 중요한 회의였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에 위기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장관이 회의도 안 하시면서…… 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북한이 도발하는 건 아니지요. 그동안에 데프콘3가 발령된 것을 보면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테러 그리고 제1연평해전, 2010년 포격 도발 등 많은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민정권이 들어서서 문민 국방부장관이 되어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찬 간담회도 없애시고 상황 보고도 안 하고 일일대비태세도 점검 안 하시고, 국가안보실에 있는 라인에서는 안보실 차장 김현종 장군 이외에는 안보실장, 2차장, 3차장 등이 다 외교관 출신이고 군사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민정부 시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보좌하겠습니까?

PPT를 보십시오.

이것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에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옆에 부통령도 있고 국방부장관도 있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당시에 군 통제를 갖고 있는 공군준장입니다. 세계 최강 군대를 우리 통상 미군이라고 하는데 군사작전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군령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구가 많으니까 군령권을 합참의장한테 안 주고 다 전구사령부에 주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실은 전구사령관을 겸하면서 군령권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한테 군령권을 행사할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해 봅니다.

첫 번째, 국방부장관은 군정권만 행사를 하고 군령권은 의장한테 위임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회의에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국가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의장이 실질적

인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사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강선영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먼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은, 충분하게 작전 사항과 정보 사항은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조찬 간담회는 운영하면서도 그 조찬 간담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을 변호하라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건의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달라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리고 군령권과 NSC 당연직 참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지금도 참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가 포함이 돼 있고 이 사항은 아마 NSC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NSC에는 합참의장이 언제든지 필요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쏠 때는 항상 합참의장 그리고 안보실, 국정원 세 부서만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우리의 대북 억제 태세와 필요시에 정말 오늘 밤이라도 싸우면 싸우겠다 하는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지휘관으로서 합참의장의 역할이 적어도 오전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입니다. 계속 야당 위원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2023년 7월 17일 10시경에 당시—육군 출신이지요—김승겸 합참의장이 해병대 1사단 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을 육군 2작사령부로 전환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8일 9시 20분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중대장에게 질책하였고 다시 7월 18일 15시 20분 육군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15시부터 철수하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해병대 임성근 사령관이 육군 2작사령부와 합참의장의 단편명령을 무시한 채 16시 30분까지 수색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정상적인 군령권자는 누구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합참에서 단편명령으로 명령을 했다고 그러면 그 명령에 기재된 지휘관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12월 3일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또 무인기를 열 차례 가까이 보냈는데 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을 패스하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 그 결과를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지시함으로써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의장은 임성근에 대해서 항명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의장후보자님. 그러니까 육군 합참의장도 해병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해군 합참의장이 지작사령관 강호필 통제가 안 되고 정보작전사령관, 작전본부장 통제가 안 되고 정보본부장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군 출신 의장이 오서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일이 절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과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감찰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공군 출신이 왔으니까 내란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대충 뭉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100% 공감하고 군의 지휘체계는 명확해야 하고 또 어떤 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지휘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하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공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공군비행장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작전 대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회 정도 하셨는데 한 달에 4.5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행히 전략사령관 하시면서는 운동을 끊고 전략사령관 임무에 집중하셨더라고요. 그러셨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미안한 질문인데 혹시 배우자와 함께 공군비행장에서 운동하신 적은 없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가족과 함께 운동한 적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박선원 위원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없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박선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 가지고 비하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

니예요. 왜 육사 출신들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하십니까?

○박선원 위원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 육사 출신이 왜 들어가요!

○박선원 위원 왜 못 집어넣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한기호 위원 있는 그대로라도 어떻게 그게 육사 출신이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봐요?

○박선원 위원 왜, 육사 출신들이 했잖아요.

○한기호 위원 언다 손가락질하고 그래!

○박선원 위원 왜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가지고……

○한기호 위원 뭘 끼어들어요?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얻은 거지.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내 얼굴 보고 그런 식으로 질문해!

○한기호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얻은 거지 어디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

○한기호 위원 어디서 맨날 이런 식으로 트집이나 잡고……

○박선원 위원 노무현 정권에서……

○한기호 위원 육사 출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 노무현 정권이 왜 나와요, 여기서?

○박선원 위원 노무현 정권에서 다 해 먹고, 사단장 해 먹고……

○한기호 위원 왜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요?

○박선원 위원 정작부장 해 먹고 군단장 다 해 먹고……

○한기호 위원 뭘 해 먹어요, 해 먹기는!

○박선원 위원 평생 어디 가서 맨날 자주국방 반대나 하고……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 어디서 말을 함부로 그따위로 해요!

○박선원 위원 뭘 그따위로 해!

○한기호 위원 정말 정신 차려요.

○박선원 위원 정신 차려요!

○한기호 위원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추잡하게 굴지 말고.

○박선원 위원 웃기지 마시오!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한기호 위원 뭐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박선원 위원 지금 의장은 육해공……

○한기호 위원 거기 출신이 왜 나와요, 나오기는!

○위원장 성일종 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고 그리고 군의 문민화를 강조했습니다. 군의 정상적 지휘체계 확립 관련해서 제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창설 과정이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노에 의해서 8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문제점과 각 부대에 드론부대가 있는데 역할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 창설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합동부대인 지금의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부대에 대해서 작전지휘를 하거나 운용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재 드론사가 적의 핵심 표적에 대해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전력 운용체계를 보면 소형 정찰 드론 그리고 소형 자폭드론 1·2, 그래서 3개의 전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사의 전력들을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는지, 전력 운용 지원체계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드론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은 완전한 드론사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저희가 질의를 넣었을 때 바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사작전에 투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드론사를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드론사 창설이 충분한 작전 환경을 고려했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합동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전략사령부가 있으면 미국의 카운터파트너로 미국에 전략사령부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드론사가 있는데 미국에, 한미합동작전에서 카운터 파트너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합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이번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의혹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대 전 드론사 사령관은 ‘합참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님은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진술 공방을 하고 있지요. 직위해제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승인한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도 사전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론사를 중심에 두고 별들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관련된 사항은 제가 후보니까 지금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어쨌건 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느낌은 드시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은 내란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마는 이것을 떠나서 지금의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니다. 저는 드론사를 해체하든지 타 사령부하고 병합을 하든지 재창설을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라든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방개혁과 군 구조 관련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이 갖고 있는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12·3 불법 계엄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담 군인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너져 내린 군의 기강과 사기를 바르게 빠른 시간 안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계엄 관련된 조사가 국방부 차원에서, 특히 특검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국방부 자체에서도 조사되고 있는데 계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바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문화라고 하는 게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정신을 바로 지킨다든지 민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겠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 합참의장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에서 할 수 있는 국방개혁 과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체적인 국방개혁 관련해서는 우리 합참 내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군 구조가 우선돼야 되고 또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한 전력 강화, 3축체계 포함한 군사력 강화가 중요한 항목으로 검토될 겁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보니까 합참의장의 임무와 역할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 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군령 분야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의 작전 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여기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령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을 보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임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군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전부대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전부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관련된 내용을 평소에 장관님께 충분하게 건의드리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언드리면서 임무의 완전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서면으로도 그렇고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군령 보좌와 관련된 임무의 인식 자체를 합참의장으로서 예하부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 장관님들이 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군령 보좌의 부분들, 군령이라는 것은 군정하고 달라 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군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참의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작전지휘 그다음에 지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각군을 작전지휘한다고 그러는데 각군의 작전부대가 몇 개지요,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상, 해상, 공중……

○임종득 위원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합동부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 부대가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지금 17개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거나 작전지휘·감독해야 돼요. 이것 재임기간 중에 한 번 가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큰 지휘폭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합참의장은 통합방위본부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혹시 통합방위작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고 통합상황 평가회의나 그렇게 같이……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공군이기 때문에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 사단장이나 군단장만 해도 그렇고 해군도 일부 제방사라든가 진기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의 의장은 누구시지요? 국무총리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총리입니다.

○임종득 위원 국무총리님도 지도체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합방위가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시에 실질적인 대응을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의장까지 포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역장교 중에 최고서열이다라고 군인사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고서열로서 지금 의장을 하시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앞서 나와 있는 대로 군령 보좌 및 작전합동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제가 좀 부언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고선임자로서 군심을 대변하고 또 건의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임종득 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하면 NSC 상임 멤버로서, 당연직 멤버로서 합참의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가서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NSC 회의 할 때 화상으로든 아니면 직접이든 상황보고만 하고 빠집니다, 지금 합참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님이나 총리님이나 장관님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경험들로 봤을 때 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당연히 포함돼 가지고 회의를 주 하면서 의견들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장관 청문회 때도 그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 법으로 제가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께서도 장관님과 상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그것은 역할이고 법적으로, 이게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서 당연직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또 포함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시면 국방부나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강대식 임종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먼저 잠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그렇게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우선 회의 중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봉어빵처럼 빵틀에서 구워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육사 출신 중에서도 과거에 민주당 의원님을 하신 분들이 천용택 장관, 조성태 장관, 서종표 사령관, 백군기 사령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병주 장군님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고 정치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물을 보는 눈도 그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 언제 장군이 됐고 어느 대통령 때 계급을 더 달았느냐 하는 거는 개인 인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김대중 대통령 때 대령에서 장군이 됐고 삼정검도 김대중 대통령께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사단장을 나갔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군단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 때 네가 혜택을 봤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우리 두 분도 지금 본인이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진급 신고를 하고 삼정검을 받은 분하고 그 이후에 현재하고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에 대해서 진급마저도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우선 얼마 전에 DMZ 안의 유해발굴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현장에, 유해발굴 하는 데 가 보신 적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직접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현장에서 다 들어가 봤습니다. GP가 폭파된 곳도 가 봤습니다.

백마고지 일대 거기가 바로 화살머리고지 그 일대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유해가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대략?

(강대식 간사, 성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앞서 백마고지에서 한 50구 정도를 작업을 진행하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옆의 화살머리고지는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거기서도 상당수를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유해가 화살머리고지에서 424구, 백마고지에서 67구 이렇게 발견돼서 약 500구 정도 가까운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뢰를 얼마나 캐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655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면 공군이시지만 지뢰라는 게 뭘니까, 적이 오지 못하게 장애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뢰를 제거하면 적이 오는 데 용이해지지요. 너무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대답을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은 당시에 화살머리고지나 백마고지 일대에서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얼마나 유해발굴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호미로 한 삽도 안 뚫습니다, 호미로.

그런데 다시 또 한다면……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우리는 거의 2차선 도로를 기가 막히게 닦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지뢰를 제거하고 우리 들어가는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닦았어요. 이게 북한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

○한기호 위원 대답을 하세요, 군인 입장에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그 사항은 지뢰를 제거하더라도 그 이후에 적에게 활용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강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

○한기호 위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군인의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전사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지뢰를 또 제거하고 도로를 낸다면 그게 전쟁이 나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뢰 제거 작업이 다시 재개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일은 반드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만약에 다시 유해발굴을 할 경우 북한하고 다시 합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지역을 한다면 북한하고 합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직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에게 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차진 대공사격장을 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그곳에서 연대장을 해서 잘 압니다. 거기가 대공사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그 상황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투력 유지하는 데 훈련의 제한을 받지요.

다음 세 번째, 지금 백령도에서 포병사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백령도에서 남쪽으로 K-9을 쏘고 있지요, 바다로 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백령도에서 사격을 안 함으로써 K-9을 싣고 나가서 육지에서 사격하고 오면서 국방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낭비했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다시 9·19가 합의되면, 9·19 살린다면 또 사격 못 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서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합참의장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면 군복을 입고 합참의장을 하지 마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답변하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군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안보에 있어서 빈틈없이 또 견고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군에서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후보자님,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면, 전쟁이야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이 전쟁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무기체계가 실증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이 또다시 세워지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북한은 상당한 최근의 전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이런 최근 치러진 전쟁 데이터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우리도 축적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전쟁을 치르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그 전훈 분석 중요성에 대해서도 합참도 또 각군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전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가질지 또 전력증강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정도면 거의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 이게 나와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되시면 이런 대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전력체계와 군령체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 계속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 이유가 전쟁 능력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반도 내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운영해야 오히려 더 안보에 유리하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께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게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합참의 전략지시를 받고 한미 합참은 한미 통수권자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한미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영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 틀어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미국 중심의 같이 합동으로 해야 우리 안보에 유리한 겁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우리의 능력은 견고하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데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가졌을 때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희 위원** 자체 능력은 있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자체 능력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없다는 거네요. 아직 미진하다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완전성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황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정감사 할 때 어느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무인기 22년도에 침투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이것 맨 처음에 침투한 거 1군단에서 10시 19분에 파악을 했고요. 지작사는 11시 10분에, 수방사는 10시 50분에, 그래서 결국은 합참이 무인기 대응하는 것은 한참 지나서 11시 27분이고 두루미 발령된 것은 12시 전후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안보 불안 아닌가요? 이게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 시기에 우리 감시자산도 일부 부족했고 또 무인기 침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연계하는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사이에 많은 보완을 하고 있고……

○**황희 위원** 개선이 되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이것 K-9에 잠수함도 있고 이지스함도 있고 이런데 비행물체 하나 날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응체계가 막 한 시간이나 늦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고 이래서…… 이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시와 추적, 타격 이러한 시스템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감시체계부터 또 추적·타격 체계까지 시스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자료 요구 건인데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요구를 안 하는데 이거는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위원장 성일종** 자료 요구 주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강대식 위원** 대표적인 것 하면 아마 알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 지금 강대식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내지 않으셨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셔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라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못 내시겠다는 건가요?

○**강대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강대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서면으로라도, 구입 날짜만이라도 저한테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만약에 이 자료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게 있다든지 그러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문회장에 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료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못 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청문회에 임

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대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관련해서 제가 강대식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자료 요청 관련된 거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보좌진들이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청문 문서를 제출할 때 그 당시의 재산 상황만 공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령 이상이면 재산 신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에 관계된 전 문가 같으면 아마, 합참의장도 그것 포함이 되는데, 중령 때부터 하는데, 지금 다른 분에 비해서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의 변화를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요청했는데 아예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협조하도록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많이 낸 줄 알았거든요? 비교적 여러 가지 주신 자료를 보면 군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도 할 수 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몇 가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밑에 지시를 하셔서 빨리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후보자님, 전방 GP라든지 GOP라든지 서북도서라든지 여기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또 공군작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해박하다고 생각되지만 지상작전이라든지 해상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의문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합참의장이 되시면 이 부분도 숙지해 가지고 잘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그 인식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9월 4일 날 전방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군사분계선 일대를 후보자께서 국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방에서의, 국경에서의 이 두 가지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말썽이 되니까 국경에서의 표현은 빼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하더라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군사분계선 일대가 꼭 국경인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 것은, 이것하고 헌법 3조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되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짧게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그때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안보가 튼실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발언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얘기할 때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전방에서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의 국경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국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화 이러한 오해를 줄 것 같아서 제가 그 뒤 문장은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후보자께서 실수하기 전의, 정정하기 전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면 ‘북한을 그대로 수용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질책 아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금의 MDL 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이라든지 전기철풀 부설이라든지 언제든 공격으로 전환 가능한 그런 전술도로와 대전차 방벽까지 조성을 하면서 국경선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후보자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지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경선화 작업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 위반행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동의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의장이 되시겠지만 합참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작업 구간에 대해서 합참에서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우리의 대비태세는 언제든지, 도발을 하거나 위해를 한다면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유엔사령부에 문제 제기, 이런 사항들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국경선화 작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초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을 지키는 군, 국가를 수호하는 군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되시면 확고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한반도와 관련된 것은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END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해요.

말씀 내용을 보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화, 대결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END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의 비전을 아주 잘 제시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 갑니다.

○김병주 위원 필요하고 공감 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합참에서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뒷받침할 예정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군은 변함없는 우리 군 본연의 임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END 이니셔티브가 실현이 돼서 빨리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오고 비핵화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방의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지금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벌써 한 8년이 됐고 그 안에 무기체계가 많이 발전했어요. 예를 든다면 소형 드론이라든가 무인

잠수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실제 도전 요소가 많다고 봐서 뉴 9·19 군사합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만일 진행된다 그러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복원한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에서는 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남북한에 대화가 되면 9·19 합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진정한 뉴 9·19 합의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작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직 그것 관련된 사안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당연히 파악을 못 했겠지요. 의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9월 2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지요. 실제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중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는 마치 미군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오전에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한미 연합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하게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주국방은 실질적으로 미국도 우리의 자주국방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매년 양국의 한미 합참의장과 한미 국방부장관 할 때 미군은 늘, 미군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이러 이런 걸 하라라는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군사력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전력소요를 반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우리 자주국방이 됐을 때 미군의 역할이 부담이 줄기 때문에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도 3.5%까지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는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실제 한미동맹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한미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다 일치가 된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은 계속 주둔하는 걸로 한미가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조금 더 설명……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래서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유지가 될 거고 긴밀하게 동맹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김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으로 후보자 지명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주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강대식 간사, 성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이 시기에 합참의장 지명은 어떤 영광보다도 책임감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라는 우리의 발표와 또 로드맵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전시에 우리가 이 전쟁을, 전시를 지휘할 수 있는 역량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희 위원님께서 주신 이야기대로.

우리가 전시가 나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주국방의 핵심이지요?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권의 회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전작권은 전환이 돼야 됩니다.

○**황명선 위원** 전환이 돼야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국군통수권자가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황명선 위원**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외부, 밖에서 이야기하는 미군 감축, 미군 철수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황명선 위원** 우리 군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자주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년에 국방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60여조 됩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북한 총생산의 한 1.4배나 1.5배 정도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런 정도면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지금 한 5위 정도로 봐집니다.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력과 북한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항간에서,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장의 입장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합참의장으로서 만일 제가 취임을 한다면 가장 머릿속에 드는 것은 반드시 전쟁 없는 역제가 가능해야 되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개시된다면 최단시간 내에 최소 피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 또 동맹 이러한 능력들을 집대성해서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주국방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육해공군, 군마다 다 작전을 하는 특수한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병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4군 체제를 지금 하겠다라고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국정과제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해병, 그러니까 각 군의 역할들을 목적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사시와 전시에 아주 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병대 독립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가장 싸워 이길 수 있는 효율적인 군 구조를 고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 있어서는 국방개혁과 연계해서 군 구조 차원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해병대가 독립되어야 될 특수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병대의 특수한 목적이 뭐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하는 게 군 본연의 목표입니다.

○**황명선 위원** 전시에는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방금 말씀드린 목표, 임무입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현재는 1사단, 2사단 그다음에 연평부대, 백령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일부 경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현재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결국은 해병대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스스로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합참의장으로 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지휘권을 해병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병대의 독립이라고 보고 이게 자주국방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군 구조 검토와 같이 연계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반드시 독립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오전에 했던 질의를 좀 연장시킬게요.

이 서면답변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다 확인하신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관련 부서 및 저희 청문준비 TF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간부들에 대한 충원율 저조 원인, 여기에 보면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병 복무 단축 및 봉급 인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합참의장이…… 이것 보셨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

○**부승찬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병 복무 단축하고 봉급 인상, 불만은 있을 수 있지요. 이게 간부 충원율하고 뭘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합니까? 병들은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하에 없습니까? 이것은 병들에 대한 인격 모독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용사들에 대한.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을 제가 여쭙본 게 답변서에 보면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18건, 세 봤는데 18건이나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향성을 묻고 있는데도 수사 중이야. 군령권은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참을 통해야 되냐?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제한됩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과 같이 상황을 후보자가 맞닥뜨리면 후보자는 어떤 자세를 견지할 것냐? 의장이 몰랐어요. 몰랐다고 했잖아요, 김명수 의장이. 그러면 어떤 자세를 보일 거냐? 전부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전부 수사 중이야, 18건이나. 전부 수사 중이야. 다른 위원들 질의 내용도 전부 수사 중이에요.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이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수사 중하고 뭘 관계 있어요? 묵인 하면 안 됩니까라든지 이렇게 못 합니까?

그다음에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대북작전이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전력으로서 가능한 전력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합참에서 작전환경 평가를 해서 북한에다가 보냈느냐. 이 두 가지가 위배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사 중입니다’.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드론 무인기가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수사 중입니다’. 18건이나 질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다 일반론적인 거예요.

법률적 평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답변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참의장님의 생각인 거잖아요.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전부 수사 중이야. 내란 종식, 계엄, 전부 수사 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엄이 발생하면 따르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계엄 세력들이 작성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이런 게 안 왔으면 뭐라 안 그러겠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답변서를 보내고 ‘확인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계엄 세력에 둘러싸여서 계엄과 관련된 거, 내란과 관련된 거는 일체 답변하지 마라. ‘규정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이건 합참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 이거 다시 한번 정독해 보세요. 이게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려요?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거.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부승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간부 충원율 저조와 관련된 것은 우리 병사의 기간 단축과 봉급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초급간부 같은 경우에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급간부와 병사의 여건이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간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조차도 병사로 복무를 함으로 인해서 초급간부의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관련된 것은 제가 명백하게 계엄에 대해서 오늘 사죄도 드렸고 또 다시는 계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합참 내의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드려요.

○부승찬 위원 병 공급과 단축은 국가의 정책으로 이뤄졌고 그러면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 정상인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서를 보신 분이……

계엄과 관련해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론적인 거 물었잖아요. 어떻게 국방부장관의 명이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규정을 묻고 있는 거지. 국군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계엄의 ‘계’자만 나오면, 사과는 하셨어요. 계엄의 ‘계’자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 무인기 합참의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몰랐다고, 특검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 관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남북의 긴장 완화를 하는 데 군이 뒷받침하겠다 그랬거든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치권이나 정책결정자들은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언어나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군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적대적 두 국가, 이미 헌법까지 바꾸면서 적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군이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합참의장으로서 나는 아까 대답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정치권에서 해빙의 무드를 조성을 할수록 군은 더더욱 경계를 비롯해서 전쟁에 대한,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군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것에 절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생각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긴장 완화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군이 굳건하게 그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바로 마지막 부분이 정답을 하신 것 같은데 군은 흔들리지 마시고 이러한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풀리더라도 군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는 것이 그게 그다음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해빙이 되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가더라도 군이 튼튼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하나 드리고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 핵은 우리의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의 절대무기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참은 여기에 모든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대통령께서 21일 날 요미우리하고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히셨어요.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을 때 중단-축소-폐기로 가겠다라고 유엔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합참이 내셨나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째 여기에 의견을 안 냅니까? 이러한 큰 정책적인 것을 할 때, 다룰 때 합참에는 아예 의견 요청이나 협의조차도 안 했습니까? 실무진에 가서 협의조차도 안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후보자님 임명되신 지가 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의장이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뒤에 참모들, 이 보고를 안 드렸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은 합참의장께서 합참을 지휘하고 계시고 제가 후보자 신분으로서 인사청문회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후보자님, 지금 업무를 의장이 지금 현재 하고는 있을지라도 후보자는 모든 것을, 과거에 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로서.

북한 핵 동결이 맞습니까, 중단이 맞습니까? 3단계……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북핵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목표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이제 3단계 방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동결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21일에는 동결이라는 말을 썼고 오늘 아침에는 중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용어적으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성일종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박선원 위원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북핵과 관련된 것은 북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핵은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동결과 중단은 완전히 틀립니다. 다음에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변 핵시설을 할 때 동결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얼 동(凍)이에요. 모든 건 얼었다가 살짝 풀리면 끝이에요. 중단은 중간에 끊는 거예요. 끊을 단(斷) 자를 써요. 중간에 끊어 버리는 거라고요. 그 시설물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막아 내는 거고 동결이라는 것은 잠시 얼었다가, 잠시 그냥 있다가 얼음은 해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참의장이 되시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아시고 대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아까 전작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작권은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수하는 데?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작권은 지난 20여 년간 준비돼 왔고 또 많은 부분이 조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의 예측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제가 지금 어떤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좀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전작권을 우리가 전환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예로서 미래연합사에 관련된 IOC·FOC·FMC 과정 중에 지금 중간 단계인 FMC의 검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할 만큼 감시자산이나 통신자산이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력화 중에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 전력화가 언제까지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각 전력체계별로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성일종** 대략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 조건 충족에 관련된 전력들은 27년, 28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리가 지금 감시자산 위성이 몇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지금은 군정찰위성 4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4기 중에서 2기밖에는 안 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력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띄워는 있지만.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력화되어 있는 감시자산이, 위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7개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7개 가지고 안 돼서 미국이나 나토의 우방국의 자산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란에서 탄도탄이 날아오면 다 계산을 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혀 가지고 자기 주요 시설로 오면 파괴를 시켰고 사막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냥 놔뒀거든요. 왜 그러냐? 전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65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언 빔같이 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드론이 날아오면 우리가 파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언 빔처럼 한국형 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일부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체계가 전력화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 자주국방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폭넓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참의장이 되시면 아주 섬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냥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그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대의명분이 정확한데.

그런데 자주국방,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토가 자주국방을 못 해서,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하고 맺었겠습니까? 영국이 동맹을 맺습니까? 일본이 맺겠습니까? 미국도 세계 전략을 세우는 데 자기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또 맺은 겁니다.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이득이 되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작권 부분도 이게 동맹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합참의장이 되시면 군인으로서 정확한 의견을 정부한테 내야 되고 그러한 것에서 의견을 내는 데는 군인으로서 추후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합참의장으로서 군을 지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처럼 하시면 안 되고 또 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처럼 하면 안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고 또 쓰는 말도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되실 텐데 국방목표는 뭐니까, 우리나라 군의 국방목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군건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 정확한 개념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이 개념이 맞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정청래 위원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국군의 제1의 목표이고 또 당연한 의무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려면 군사력과 국방력이 강해야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요즘은 전쟁을 하는 데 총체적 역량이 다 동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력·경제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형의 엄청난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아주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래서 지금은 군이 쿠데타를 하려고 해도 국민들 때문에 못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탱크 몰고 들어가서 방송국 장악하고 정보 장악하면 쿠데타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작년 12월 3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와서 막았어요. SNS가 발달하면서 쿠데타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조치로 격퇴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타 부처 장관님의 의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부분에 더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는 유지돼야 되고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은? 그리고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나라 외교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해가 돼서도 안 되고 외교적으로도 잘 풀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 말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국방력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다시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방 태세나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를 압도할 때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동의합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무기체계나 아니면 무기의 과학화나 또 첨단 무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북한보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참 의장이 되시면 이런 국방의 목표 그리고 국방 태세 이런 부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 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도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합참의장후보자님, 아까 다른 분들 답변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이 정부 정책 지원한다’ 그것은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레토릭을 합참에서도 같이 내는 것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기로 군사적 능력을 못 갖췄느냐’라고 했더니 ‘갖췄다. 단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했던 것의 PPT를 다시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당연히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춰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3년도 3월 12일 날 NPT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핵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한 핵을 탑재 탄두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화성-19 다탄두 무기를 24년도 10월,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 연설하면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엔드(END)’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핵화가 먼저냐, 교류가 먼저냐, 관계 정상화가 먼저냐라고 논의가 되니까 지금 안보실장이 다시 오늘 서로 상호 간에 세 가지는 같이 하는 거다, 순서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번 9월 21일 날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부터 사활을 걸고 개발한 핵을 교류와 관계 정상화하고 자연스럽게 파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교류와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는 엄청나게 지난한 협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될 건데 그때까지……

PPT 다시 띄워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 2, 북한의 재래식무기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

에요. 비대칭무기, 핵의 위협을 보십시오.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게 3축체계인데 3축체계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핵 위협 대응능력이 30년대 초반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도. 그런데 어떻게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데 완전성을 구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당연히 자주국방 가는 것 당연하고요.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저렇게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응징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가기로 한 계획이 30년대 초반에 가야 구비돼요. 그런데 어떻게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다, 완전성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가적인 전력들에 대해서는 시기는 좀 더 후미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지금 전작권 전환과 같이 연계돼 있는 조건들에 포함된 전력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력보다는 앞쪽의 전력화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전력화는 그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력화하고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력들이 더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들이 다 완성됐을 때 우리의 자체 자주국방에 대한 전력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즉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게 구비됐을 때 지금 북한이 9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간 개발하고 있는 핵 무기, 특히 탄두와 그다음 핵 기술이 합쳐진 작년도 개발한 화성-19 같은 거에 대응하려면 감시·정찰자산도 없고요, 대응 능력도 없고요, 킬체인도 안 되고 KAMD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응징 보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쓰면 정말 정권이 망하겠다고 했을 때 드디어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엔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능력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으나, 맞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 부분 한미 간에 또 긴밀하게 잘 토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가 능력 갖추는 거지 그건 미국이 갖춰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 해결을 위해서……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박선원 위원님.

○강선영 위원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임종득 위원 박선원 위원!

○박선원 위원 내 관점이에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대 놓고……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박선원 위원 들어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들어 보고 이야기하세요.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선영 위원 그렇다고 뭐 말 같지도 않아?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내가 핵 협상에 대해서……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이것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박선원 위원님 어떻게……

○강선영 위원 못 넘어갑니다. 뭔 말 같지도 않아?

○강대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 뭐 합니까, 이것?

○박선원 위원 들어 보세요.

○강대식 위원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로……

○박선원 위원 들어 보라고.

○강선영 위원 다른 의견을 말한 걸 말 같지도……

○박선원 위원 왜 여러분들은 훈계하듯이 질문하시고 나는 훈계하듯이 말하면 안 돼요?

○강선영 위원 말도 안 되는 의견? 말 같지도 않은 의견?

○임종득 위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니?

○박선원 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

○강선영 위원 말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박선원 위원 왜 다 달려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내가 설명해 줄게!

○강선영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말해?

○박선원 위원 임종득 위원, 그것도 몰라? 브리징 케이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 알아, 몰라? 한미 전략지침 서명할 때 그 상황 알아, 몰라?

○강대식 위원 가르쳐라, 가르쳐. 참 매너가……

○박선원 위원 좀 가만히 있어요, 강대식 위원. 모르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강선영 위원 아니, 어디다 말도 안 되는 질의라고 함부로 하냐고, 박선원 위원!

○강대식 위원 매너 좀 지키세요!

○임종득 위원 정신 차려요!

○위원장 성일종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 회의는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막중한 합참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후보자가 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래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 공히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로가 존중하고 또 아끼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신공격이나 또 위원에 대한 상호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박선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기본 태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오전에 한기호 위원님, 경력이나 연세도 있는데 그걸 들어서 인신 비방성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합참의장에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발언이 있었는데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일종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순탄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은 하셨는데 저한테는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박선원 위원 그건 내가 싸잡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제 발언이 끝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님? 제 발언이 끝나면……

○박선원 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 하고 사과할게요, 내 할 이야기 하고.

○강선영 위원 먼저 사과하시고 해야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 없어요. 내가 사과할 것 없는데 지금 합참의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하길래 지금 하는 건데, 그만하세요.

○강선영 위원 사과하려는 마음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박선원 위원 성 위원장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내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오늘 진짜 군령을 책임져야 되는 합참의장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시바빠 합참의장이 임명이 되어야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대비태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번에 사실 우리 국방위원들,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복 입은 군인에게는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능력과 인품과 모

든 걸 검증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위주로 이렇게 해 주셔서 합참 의장이 임명이 되더라도 바로 영이 설 수 있게 이런 여건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간에 언쟁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합참의장 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또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님들, 오늘 정책 위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백선휘 위원님은 빼요?」 하는 위원 있음)

조국혁신당의 백선휘 위원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저는 21대 전반기에 이어서 22대 전반기에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었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선배·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국방만은 여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걸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러한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이렇지만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으로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박선원 위원님께서 정말로 위원장의 어떤, 좀 전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 좀 진심으로 와닿게 한마디 해 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정말 유감스럽네요. 오랜 기간 사실 합참의장후보자 청문을 준비도 해 오고 또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 위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다 정책질의만 한 겁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질의할 게 없어 가지고, 질책할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오전에 한 번 그랬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정회해서 다시 제기를 했는데 또 한 번 똑같은 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시면서 한기호 위원에 대해서는 했지만 사실은 강선영 위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위원들, 야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강선영 위원한테 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거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선원 위원님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제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시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후보자님, 미국의 합참의장, 잘 아시는 밀리 합참의장도 군과 정부를 구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력과 안보 태세로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겠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지위는 똑같지만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이 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후보자의 답변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가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한미 간에는 2006년부터 브리징 케이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대로 국방력을 증강하고 한미 간에 협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력으로 북의 핵능력을 확실하게 억제를 하되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전력,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로 메꿔 줄 테니 한미 간에는 이미 계획된 대로 전작권을 전환해 가자 하는 것이 양국 최고 당국자의 입장입니다. 2006년 전략지침에 제가 서명할 때 그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왜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전작권을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미스매치가 일어날 때 미국이 이야기한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로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자주 국방이고 그것이 전작권 환수인 것입니다.

베트남에 미국의 무기가 부족해서 베트남이 망했습니까? 중국의 공산당한테 국민당이 미국 지원이 부족해서 망했겠습니까? 스스로 싸울 의지와 스스로 전투를 지휘할 능력 그리고 제공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교리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 전작권 환수 그리고 우리의 정예의 국방력 건설 계획 그래서 8.2% 올리겠다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입장, 그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지받고 여기 계시는 모든 국방위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협상에 대해서 제가 2003년부터 6자회담 청와대 대표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계속 해 왔어요. 중단해라, 줄여라, 없애라.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END, 익스체인지(Exchange),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Denuclearization). 한미가 북한과 교류하면서 완전한, 노멀라이제이션 외교관계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의 비핵화를 종료시켜서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Denuclearization)을 맞춘다. 그러기 위해서 익스체인지, 교류한다. 그것은 한미 간의 이삼십 년 된 기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답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방향으로 합참의장후보자에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주국방 틀린 것 아니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END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을 후보자에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후보자의 기본 입장이 같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강선영 위원은 그런 점에서 혹시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적으로 한번 같이 토론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틀리고 어떤 생각이 같은지.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대놓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박선원 위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사과하지지요?

○박선원 위원 사과는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김병주 위원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강선영 위원 장난합니까, 지금?

○임종득 위원 뭐야 이게, 지금?

○박선원 위원 그만해, 이제.

○임종득 위원 사과를 한다 그래 놓고는 사과는 아니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박선원 위원 임 위원, 이제 그만해.

암말 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황희 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황희 위원 자꾸 또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건드니까 그런 거지요.

○임종득 위원 이게 사과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예요.

○한기호 위원 아니 수석님, 여기 의결하려면 몇 명 있어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8명이 필요합니다.

○한기호 위원 8명?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한기호 위원 미진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려면 과하게 해서 미안하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박선원 위원 이석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나갑시다.

(일부 위원 퇴장)

○김병주 위원 아니, 사과했잖아요.

○임종득 위원 아니, 사과해 놓고는 사과 안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차라리 하지 말지.

○김병주 위원 아니, 한기호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께도 사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내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김병주 위원 했지 않습니까? 아니, 참……

○황희 위원 아니, 속기록 보면 나와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김병주 위원 아니, 그 정도면 사과가 되지 뭐 정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합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약속 안 지키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

자, 위원님 몇 분이 이석을 하셔서 잠시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가 재보충질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도 하실 거지요?

○백선희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이 미국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제이비어 브라운 주한미군사령관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중국, 대만이 무력 충돌할 시에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이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동맹이나 주권, 한반도 방위 차원에서 국민적인 우려가 큰 사항인데요.

지금 합참의장후보자이지만 이전에 전략사령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미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전략적 동맹 현대화와 연결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군, 합참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 대한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시키는 게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국익 관점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은 아는데 이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혁신당에서는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모든 위협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독자적 전력 보강 문제, 작전계획의 기본전제 재설정 등 작계 수정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의 방위구조 전반의 변화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신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또 지금도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유연성과 연계해서도 우리 국익과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 한반도 안정과 대북 억제력이 주임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너무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의 불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대만 불안정은 우리 한반도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반도마저 불안할 때는 대만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반도가 안정되는 게 또 동맹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측 동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18대부터 현재까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또 이곳에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21대, 22대 계속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는 말 그대로 안보에 관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22대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절차탁마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제발 좀 국민들한테 그렇게 추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선원 위원님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강선영 위원님에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강선영 위원님이 ‘나는 참석을 못 하겠다’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도 ‘그건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중에 민주당 간사님께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후보자님, 지휘관이 부대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도 과거에 군문을 떠날 때 레임덕이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지금 군은 어떠냐? 공군은 제가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기를 마친 지휘관이 얼마나 더 하고 있냐? 거의 1년을 더 하고 있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 지휘관은 어디로 간대? 다음에 누가 온대?’, 지금 부대 지휘가 되겠습니까?

또 지휘관이 공석인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5군단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대리근무를 누가 합니까? 부군단장이 하면 준장이 대리근무를 하고, 밑에 사단장은 소장입니다. 대리근무 해도 안 됩니다. 사단장보고 대리근무 하라 그러면 사단장은 실병력을 지휘하고 있는데 군단에 와서 대리근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 상당한 기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또 전략사령관 할 때…… 전략사령부 창설할 때 전략사령부에 편성된 인원, 제가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 알지만 구태여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인원들이 별도로 정원을 받아서 창설했습니까, 아니면 예하부대에서 차출해서 창설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합참의 기존에 본부에 있던 인원과 추가 인원은 염출해서……

○한기호 위원 염출이라는 게 뭐예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다른 부대에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 부대는 그 자리에 그만큼 빈다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야전은 어느 정도까지냐? 중대장 예하에 소대장이 4명인데 소대장 4명이 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투력이 발휘가 됩니까?

또 지난번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육아휴직을 가 있는 인원이 2000명에서 2500명 사이가 항상 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데 누가 그 임무를 대행합니까? 대부분 계급이 중사, 상사, 대위, 소령입니다. 무슨 전투력이 유지가 됩니까?

합참의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드론사 만들 때 그다음에 전략사령부 만들 때 예하부대 공석을 만들어 놓고 차출해서 전부 만들어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가서 없어요. 지금 들어오는 병력도 68%밖에 안 들어와요, 부사관은. 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후보자님이 의장이 돼서 이것 기강을 세운다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볼까요?

KF-16 활주로 이탈 사고가 있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포천에 민간인 지역에다가 오폭한 게 있었지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캐나다인가 알래스카에서 또 사고 있었지요, 공군이?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 평시에 대한민국 전투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포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어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

○한기호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그것 관련해서 공군참모총장이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사과해 가지고 돼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주도 주지 말고 회사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군은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책임 안 지더라도 누군가는, 장군이 책임져야지요.

채 해병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장이 ‘제가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다 끝나요, 그 자리에서.

지금 공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탄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군 이게 공군의 모습인데 지금 사고 얼마나 많아요? 장교가 목숨을 끊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부사관이 목숨을 끊고.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작전 지휘만 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군 서열 1위입니다. 공군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고가 외국에 나가서…… 국내에서 국민에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활주로를 이탈하고, 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장군은 책임지라고 있는 것이지 권한만 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강을 세우십시오, 책임을 지울 건 확실히 지우고.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 공군총장한테 오폭 사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옷을 벗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령관들이 있잖아요. 비행단장도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기강이 확립됩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한기호 위원님 말씀 사고 관련해서는, 군의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안정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구성원들이 단결될 때 작전의 완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의장으로 취임한다면 각 군 총장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안정적인 군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하셔야지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해요.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해요. 민간인이 쓰는 용어 쓰지 마세요. 군복을 입었으면 군복 입은 장군답게 좀 얘기하세요.

○위원장 성일중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승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오늘 합참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 한기호 위원님과 그리고 백선희 위원님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위원님께서 다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강선영 위원께 여당 간사로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또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성일종 위원장님께도 송구한 마음을 여당 간사로서 전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기호 위원님이나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과한 표현을 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강한 반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설득해서 최소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적은 지적이고요. 그리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모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마지막 한마디 제가 의장님한테 드리려고요.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후보자님, 우리 당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내신 거에 대해서 자리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라고, 내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의장이 됐을 때 군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하면 의장 자격 없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서류를 안 내겠다? 그러면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것도 못 합니까, 후보자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건 오늘 청문회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하겠다?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자기가 처신한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태도지요.

가족이든 누구든 군에서 군 생활은 군인 가족의 날이 있듯이 같이 군 생활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 묻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의장을 하면서. 알고 묻는다니까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군 생활하고 또 제 주변, 가족, 자녀, 누구도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그게 제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게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축의 부끄러움 없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야당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소 국회가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위원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선들을 앞으로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특히 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우리가 다른 상임위처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젊음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젊은 병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가파식, 다른 상임위처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정말 정회를 안 해도 되는데 해 왔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여러 번 붙들고 부탁도 하고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진영승 후보자는 군령을 행사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군이 그동안 오랜 공백이 있었고 리더십의,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을 또 대선배를 이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막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방위 회의 중에서도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 모두 한 발짝씩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우리 병사들이 보고 있고 또 국가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더 너그럽고 넉넉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당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서 여당 위원들께서 오늘 또 몇 분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간사님 비롯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방위에는 장형 같은 한기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군에서 평생 일을 하였고 또 명예로운 장군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4선 의원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군의 안정을 위해서 도와줄까 늘 고민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 하시면서도 파행이 될 때마다 한기호 위원님 또 임종득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군에 계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회의는 꼭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영승 합참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진영승 후보자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진영승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안보에 대한 고심과 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전해 주신 아낌 없는 충고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보완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군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

에도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출발하는 우리 군을 믿어 주시고 군이 국민의 군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성일중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중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진영승 후보자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후보자님, 아까 지적하신 미비한 자료 요청한 것은 앞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중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 희

○청가 위원(2인)

김민석 유용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출석 공직후보자

진영승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1)

9월 17일 회부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이상 2건 9월 1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75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58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9. 19.
국방부령	제1188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55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9. 23.